

전력거래 자유화, 넘어야 할 산 많다

〈제주형 뉴딜 정책과제〉

한전 독점체제 개편 따른 법제도 개선 선행 주장
공급가 인하·안전기준 마련도… 정부 긍정 검토

제주형 뉴딜사업의 핵심과제인 '전력 거래 자유화' 실현에 따른 제도 개선이 향후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정부의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탄소중립 도시인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2030)' 실현을 위해 국민 모두가 재생에너지를 매매할 수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와 '2030년 내연차 신규 등록 중단' 등 제주형 뉴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원 지사는 “‘탄소 없는 섬 2030’을 추진 중인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4.4%로 정부 목표치의 70%를 이미 달성했고, 지역 전기 사용량의 30.3%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에선 더 많은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전력거래 등의 규제로 풍력발전이

제한받고 있어 전력회사(한국전력)의 독점을 없애는 ‘그린 박쟁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 자유화가 이뤄진다면 제주지역 풍력과 태양광에너지 출력 제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비약적으로 높여 탄소중립에 빠른 속도로 다가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기 생산자가 한전 송배전선로를 거쳐야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때문에 제주형 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제주도가 ‘전력거래 자유화’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전력 거래소와 한전 등 해당기관과의 정책 협의도 필요하다.

다행히 현재 정부 차원에서의 친환경에너지 부문에 따른 ‘그린뉴딜’

의 중장기 정책이 신재생에너지발전 및 수소차·전기차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며 캐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탄소세 도입 등을 비롯해 전력거래 자유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한전의 독점을 깨고 민간기업이 전력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전력거래소에 판매되는 태양광에너지의 평균가격은 kWh당 160원 수준으로 석탄·석유 전력의 평균공급가격 115원보다 높아 이에 대한 조정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풍력발전 등을 통해 생산되는 잉여전력에 대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이나 잦은 고장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11일 도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전력소비용량은 1868MW로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전력설비는 풍력 290MW, 태양광 260MW 등으로 30%가량을 차지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서귀포시민회관 헬고 ‘문화광장’ 조성된다

동홍동 새 부지엔 복합센터

서귀포시민회관이 동홍동으로 이전,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로 신축된다.

서귀포시는 11월중으로 기존 서귀포시민회관에 대한 철거에 착수하는 등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서귀포시민회관은 지난 1972년 9월 대지면적 6821㎡·연면적 1623㎡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50년 가까이 서귀포시민의 문화 함양·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서귀포시민회관과 이미 철거된 서귀포소방서 부지는 문화광장 조성사



이달부터 철거에 들어가는 서귀포시민회관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업과 연계한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부지로 활용된다. 동홍지구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신규 우수저류시설사업에서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사업부지는 대상지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사가 완료되는 2022년 8월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제공된다. 기존 시민회관을 대체할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는 동홍동 396-1번지 일원에 신축된다. 총사업비 305억원을 투입, 연면적 6200㎡ 규모로 2022년 준공된다.

현영종기자 yihyeon@ihalla.com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모

서귀포시는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오는 23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오는 19~23일 사이 신청하면 된다.

위탁기간은 2021~2023년까지 3년이다.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 4명이며, 서귀포시의 선정 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이 시작된다. 위탁사무는 홀로사는 노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생활교육·상담 사례관리 등이다. 현영종기자

청정제주 수자원 정책 방향과 목표 (중) 정책방향과 목표

상수도·농업용수 공급시스템 일원화 시급

빗물·용천수·하수재처리수 대체수자원 활용 원칙 재정립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인구 증가와 산업고도화에 따른 난개발, 기후변화, 축산 폐수 및 과다한 비료·농약 사용은 제주의 생명수인 청정 수자원을 위협하는 요소들이다. 지하수에 의존하는 제주도의 특성상 정책방향은 지하수에 집약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수자원 보전·관리는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물관리 시스템의 혁신적 개선이 요구된다.

▶물공급 시스템 일원화 ‘혁신’ 궤하다=제주지역의 물 공급 시스템은 생활용수인 상수도과 농업용으로 이원화 돼 있다. 이를 단일 용수공급 체계로 일원화함으로써 합리적인 물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이원화된 공급체계로는 특정지역에 물이 필요할 경우,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필요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을 갖고 있다. 실제 2013년, 2017년 가뭄 당시 서부지역

농업용 지하수의 과다 이용으로 해수 침투가 발생해 농작물 피해로 이어졌다. 용도와 상관없이 물 공급이 이뤄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도는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지역간 수량·수질적 편차가 없도록 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청정제주 지하수의 수질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수자원 이용·배분 원칙을 재정립해 물 순환의 건전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8~10%인 점과 함께 질산성 질소 평균 농도가 4~5mg/l로 인위적인 오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농업용수 등 비음용수인 빗물, 용천수, 하수재처리수를 대체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원칙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4대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통합가=도는 기본방향에 따른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을 설정했다.

첫째, ‘제주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배분’은 제주형 통합 물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도는 이를 위해 용역비 19억원을 투입해 최근 한국

수자원공사와 제주연구원에 ‘제주형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안정적인 물 확보를 위해 용수 공급 및 관리체계 개선, 대체 수자원 활용 확대,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수질개선 및 오염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용역은 2022년 완료된다.

둘째, ‘기후변화 및 가뭄에 대비한 대체 수자원 확보’는 한정된 지하수를 대체하기 위한 빗물, 용천수, 하수재처리수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풍부한 자원인 염지하수의 담수화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셋째, ‘지속이용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수질개선 방안 마련’은 지속속인 오염원 증가로 오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화학비료,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관리 강화 및 노후 관정시설 개선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넷째, ‘통합 물 관리 실현을 위한 물 관련 제도 개선’은 현재 법 제도 하에서는 용도별 지하수 관리 등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 개선 단일화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한 통합 물관리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백금탁기자

“돌외”서 항바이러스 효능 확인

JTP·한의학연구원 특허 출원

제주 돌곶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돌외’ (사진)에서 강력한 항바이러스(인플루엔자) 효능이 확인, 특허까지 받으면서 향후 산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테크노파크(JTP)는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김기욱 박사팀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마진역 박사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제주생물자원인 돌외 추출물에서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팀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 모델을 활용해 한의기술응용센터에서 항바이러스 실험을 수행한 결과, 돌외 추출물을 저농도에서 처리했을 때 바이러스 감염이 강력하게 억제된다는 것을 도출했다. 아울러



제주테크노파크는 돌외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항바이러스 사이토킨인 INF- α , β 가 비처리구와 비교해 40~50배 이상 상승하며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인플루엔자 감염 억제 효과’ 연구결과는 양 기관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다. 백금탁기자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위탁기관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선정

제주시는 내년부터 2년간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를 운영할 위탁기관으로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는 현재 운영을 맡고 있는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만 응모했고, 제공고에도 다른 기관이 신청하지 않으면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수탁기관은 내년 1월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소통협력공간의 관리운영과 주민 주도 사회혁신활동의 확산,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통협력공간은 제주목관아 맞은편 구 미래에셋대우 제주사옥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년 5월에 조성될 예정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진정한 제주인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 입상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핵심 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일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립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알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악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키위농가에 희소식

21세기 최첨단 비료 히트룩가 들어있는 → “이노페스” 탄생

종미개선 뿌리발달 당도 향상 광합성 촉진 이노페스 생산성 증대 신진대사 촉진 내병성 강화

이노페스 성분

원 료 명	효 과
히 토 료	염류중화 · 토양개량 · 천연항균 작용
식이유황(MSM)	천연항균 작용
부 식 산	유기를 대체 · 토양개량
벤토나이트	토양개량
고삼 · 백합추출물	토양해충기피
아미노산	천연질소질 공급
미량요소(Mg, B, Mo, Cu, Fe, Mn, Zn)	필수 미량요소 공급

특 징

☆가스피해가 없다 ☆항균작용으로 토양이끼 억제
☆염류중화 작용으로 뿌리생육 발달로 역병예방
☆시비가 간편하며 시간과 인건비 절약 ☆히토류 첨가로 작물의 기차 조절

사용 방법

키위 = 1,000평 기준 20~25포(포당 15Kg)
※ 다른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처 (주)포트라 판매처 농협 · 김협

공급처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